

Case Study

LIG손해보험

차세대에 DB2 도입한 첫 사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차세대시스템에 DB2 도입
한 발 앞선 선택과 투자로 '타임 투 마켓' 시스템 구축



LIG 손해보험

LIG손해보험은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발 빠른 대응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도 그렇다. 10여 년간 사용해 온 메인프레임을 유닉스 서버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DB를 IBM DB2로 선택했다.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에 타 DBMS가 통상적으로 선택되던 전례에 비춰 보면 LIG 손해보험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LIG 손해보험의 선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LIG손해보험은 2009년 업계 최초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사상을 적용한 자바 기반의 기간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포함, IT 투자와 도입에 있어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오픈한 SOA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은 경쟁사들 보다 앞서 단위 서비스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LIG손해보험의 IT 시스템 도입 및 활용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 가 본다. 김정은 기자 jekim92@itdaily.kr

Case Study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에 DB2 도입

LIG손해보험은 1997년 이후 10여년 간 사용해 온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유닉스 시스템으로 다운사이징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로서 2005년 9월부터 10개월에 걸쳐 리호스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리호스팅 프로젝트는 오픈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프로젝트의 검증 단계로서, 주요 시스템과 플랫폼이 새로운 서버환경에서도 잘 운영되는 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리호스팅 프로젝트는 통상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차세대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호스팅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수개월에 걸친 POC와 BMT를 수행하며 꼼꼼히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 LIG 손해보험측의 설명이다. LIG손해보험의 리호스팅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하드웨어를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미들웨어를 CICS에서 오픈 프레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다.

리호스팅 프로젝트 추진 당시 주요 시스템으로는 ▲IBM 유닉스 서버 + 티맥스 오픈프레임 + IBM DB2와 ▲썬 유닉스 서버 + 썬 오픈프레임 + 오라클 DBMS가 제안됐다.

LIG손해보험은 이들 제안 가운데 IBM 유닉스 서버와 DB2, 티맥스 오픈프레임을 선정했다. 특히, 유닉스 시스템으로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오라클 DBMS를 고집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오픈 환경의 기간제 시스템에 IBM DB2를 도입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LIG 손해보험은 IBM이 성능 뿐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 파트너로서 확신과 믿음을 줬다는 점을 꼽았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성과와 고객 지원에 대한 신뢰

LIG손해보험은 DB2를 선택했다. LIG손해보험 IT추진팀 김인창 과장은 “제품 선정 과정에서 IBM과 오라클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DBMS를 변경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이나 클렌징 등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에 항상 함께 고민하게 되는 숙제이다. 오라클의 경우 부가적인 이슈에 대한 기술 지원은 없이 DBMS 설치, 트러블 슈팅 등 DBMS 자체에 대한 지원만 약속한 반면, IBM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함께 할 것이라는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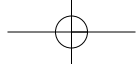
뢰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리호스팅 프로젝트는 차세대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이나 성능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기술지원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등 다른 업무로 DB2 확산 추진

리호스팅 프로젝트는 데이터 클렌징 및 튜닝 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이슈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 됐다. 김인창 과장은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기간 내내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 이뤄졌을 정도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데이터 클렌징 및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어려웠다”며 “10번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IBM DB2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도움을 준 덕분에 보다 수월하고 문제없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LIG손해보험은 기간제 시스템을 IBM 유닉스 서버와 DB2로 전환하는 리호스팅 프로젝트 이후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90% 이상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DB 응답 속도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단축되었으며, 오라클에 익숙했었던 개발자들도 IBM



DB2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원활히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DB2 8.3 버전을 사용했던 리호스팅 프로젝트에 이어,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진행된 차세대 프로

젝트에서도 DB2 9.2 버전을 사용했다. LIG손해보험은 현재 퇴직연금 시스템을 제외한 전 기간제 시스템에 DB2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퇴직연금 시스템도 조만간 개발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IBM DB2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

LIG손해보험 IT추진팀 김인창 과장

“성공여부는 브랜드나 인지도가 아니라 성능과 기술지원력이다”

업계 선도적인 시스템 투자로 인한 경쟁력은.

금융 업계에서는 특히 신속하게 상품을 출시해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타임 투 마켓 지원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실손 의료 보장 사건은 경쟁사 보다 앞선 시스템 투자가 빛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손보사들이 실손 의료보험료를 100%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자 당시 80% 만을 보장해온 생보사들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결국 금감원에서 절충안으로 90%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사는 10월까지 100%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그 이후 90% 보장하는 신상품을 옵션을 붙여 제공함으로써 변경 요건을 적용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신속히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7월에 단위 서비스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부 경쟁사의 경우 금감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상품 개발이 지연되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DB2 관련 지원은 어떠했는가.

IBM의 DB2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데이터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10개월에 걸친 리호스팅 프로젝트 기간 내내 DB2 전문가들의 상시 지원을 받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관련 문제는 전혀 없었다. 당사 직원들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시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될 정도로 안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



시스템을 운영하며 느낌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현재 DB2를 지원하는 관리 툴, 튜닝 툴 등이 다양하지는 않다. 오라클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DB2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DB2 개발자가 많이 양성되면 DB2의 시장 확산은 물론, DB2를 지원하는 툴에 대한 선택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BMS의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할 점.

글로벌 제품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기능이나 성능을 제공하므로 특정 제품이 특별히 좋다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기존 DBMS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환경과 보유한 기술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벤더의 정책, 파트너십과 신뢰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을 줄 안다. 개인적으로는 업체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기술지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